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미국 메트라이프, AIG 생명보험 자회사 인수설

- 메트라이프가 AIG의 생명보험부문 중 하나인 알리코(Alico)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인수가는 140억~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AIG는 지난 2008년 9월, 정부로부터 1,8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구제금융을 상환하기 위해 20건이 넘는 자산매각을 통해 119억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만약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AIG의 경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산매각이 될 것이며 메트라이프로써도 사업구조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921년 설립된 알리코는 현재 54개국에서 1,9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AIG의 생명보험 회사임.

- 이번 매각 작업에 대해 두 회사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AIG와 메트라이프 주식이 각각 2%, 2.7% 상승하는 등 시장의 시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알리코가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생명보험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당하다면 메트라이프가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함.
 - 메트라이프의 CEO 헨릭슨(Henrikson)은 지난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보험사의 인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그러나 메트라이프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메트라이프가 알리코를 인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수설을 부인하였고 AIG는 특별한 언급을 회피함.
 - 또한 AIG의 경우 지난 여름 메트라이프 출신인 벤모슈(Robert Benmosche)회장이 취임한 이후 AIG의 보험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들의 매각작업을 늦추고 있으며 알리코를 매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인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임.

(Insurance Journal, 1/20)